



고려대장경연구소 2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을 들고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고려 대장경 가치 세월가면 더 빛날 것”

고려대장경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봉행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00여 대중 발원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전달식도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정보화 시대 불교도 변화해야 합니다. 대장경의 디지털화는 불교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 등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전산화 작업을 해 온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창립 20돌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3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태녕 서울대 교수,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300여 대중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

님의 격려사, 각계 축사, 공적기 및 감사기 전달, 표창장 수여, 초조대장경 복간본 봉정의식 및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은 기념법회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만큼 새로운 불교가 만들어 진다”며 “통합대장경 발간, 인지와 학과의 연계 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문화부장 진명 스님 대독을 통해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연구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과”라고 치하하며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정보화 시대에 맞춰 디지털 대장경을 우리 손으로 개발했기에 문화선진국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여겨진다. 원형이

모호해진 인터넷 상에서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은 세월이 가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화부 차관 재임 당시 대장경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당시 불교는 현재의 한류역할을 했으며 대장경은 그 문화를 집약한 것”이라며 “한국 전통 문화를 육성하는 근간에 대장경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대장경 사업의 공적을 담은 공적기는 이태녕 교수, 한용의 삼성문화재단 사장, 이영령 문화부 장관, 소홍렬 교수, 랭카스터 교수 등에게 전달됐다. 또 남권희 교수 등 대장경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에게 감사기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장 전산화·검색 시스템 재정비 새 10년 불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

“대장경 연구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문화재로서의 불교 뿐만 아니라 정보와 콘텐츠로서 활용돼 불교와 사회를 바꾸길 바랍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사장 종립 스님은 지난 20년과 새로운 20년에 대한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종립 스님은 “근대와 과정에 불교가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한자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 종단은 혼란기였다”며 “이런 시기에 대장경을 전산화하는 것이 불교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종립 스님은 “해인사 대장경은 누구나 자



랑하는 세계적 보물이지만 현재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진행 중인 통합대장경 사업은 중국·일본·속장경이 진행됐으며 티벳과 범어대장경 정리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종립 스님은 “대장경의 활용을 위해 인지와 과학 등과 연계해 검색 체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크게 보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인쇄술과 목판기술, 건축 등 학문이 모인 대장경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족문화 발전에 전국민 참여해야”

각계 인사 축하와 향후 과제 밝혀

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힘을 보탠 각계 인사들은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창립 초기부터 연구사업에 힘을 보탠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3년 대장경 전산화가 시작됐을 때 맨바닥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사업이 완만히 진행되는데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다. 새로운 세대에 찬란한 불교문화와 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용의 삼성문화재단 이사장도 “대장경 사업이 완만히 진행된 것은 2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진한 관계자들의 노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런 성과가 1000년 후에도 전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에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루이스 랭카스터 미버클리대 명예교수도 “경관을 목판으로 새기기 시작하지 천년이 후 최신기술과 방법으로 그 가르침을 옮기는 중요성은 재삼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지면을 통해 의미를 전했다.

‘디지털 불교 산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걸어 온 길



1990년대 전산화 모습

1993년 3월 1일 발족해 1994년 4월 1일 공식 창립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설립 3년 만인 1996년, 세계최초로 81,258편의 고려재조대장경을 전산화 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재조대장경 영인본과 초조대장경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으며, 1998년 <고려대장경 해제>, 1999년 <고려대장경 용어사전>, 2000년 <고려대장경 이체사전>을 발간하고 전산화했다. 전산화 결과물은 CD로 배포된 <고려대장경2000>, <고려대장경2001>, <고려대장경2004> 등이며 2008년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돈황프로젝트를 진행해 초조 및 재조 고려대장경 이미지DB와 돈황 문헌 이미지DB를 연동하도록 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주기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장경학술총서로 펴내는 한편 ‘화엄사 화엄석경 보존복원사업’, ‘돈황 프로젝트’, ‘한일 공동 초조



2004년 초조대장경 DB구축사업 당시 모습

대장경 디지털DB 구축 및 영인본 출판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일 공동 고려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1년 <팔만대장경 선역본>과 <대장경 남북번역 용례 및 통일안>을 발표하는 등 남북한 통일 대장경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에도 나서 1994년 해인사에서 ‘제2차 세계전자불전협의회’를 주최했으며 ‘불전통합목록프로젝트’ ‘전자문화지도협의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고려 교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대장경학회 창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인지와 과학 등과 연계해 검색 시스템을 재정비중이다.

1993년 3월 3일 해인사대장경 연구소 발족 및 1차세미나 개최

소식지 <장경도감> 창간호 발행

1994년 금강경 일자생성 프로그램 개발 및 금강경 일자색인집 발간

1995년 <고려대장경판 교육자료집> CD집 발간 및 인터넷 서비스

1998년 ‘디지털 팔만대장경 불사 캠페인(본사 공동)’

1999년 고려대장경 검색서비스 실시

2000년 고려대장경 2000 전산화본 발표, 이체사전 출간

2001년 <팔만대장경 선역본>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간) 출간

2002년 대한불교전각종(소의경전 전산화)사업 시행

2003년 화엄사 화엄석경 보존복원사업 추진

2006년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구축사업 시행

2007년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포식

2008년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구연구시스템 구축

2011년 고려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 및 특별전

2012년 초조대장경 이운페어 드 및 기념식

2013년 창립20돌 기념법회·교장 학술발표회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홍교 (법화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권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태,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